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김 지 은

2014년 2월

중학생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혜숙

김지은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02월

김지은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0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문제 | 4 |
| 3. 용어의 정의 | 4 |
| 1) 가족탄력성 | 5 |
| 2) 심리적 안녕감 | 5 |

II. 이론적 배경

| | |
|-----------------------------------|----|
| 1. 가족탄력성 | 6 |
| 1) 탄력성의 개념 | 6 |
| 2) 가족탄력성의 개념 | 7 |
| 3) 가족탄력성의 이론적 기반 | 11 |
| 4) 가족탄력성의 요인 | 16 |
| 2. 심리적 안녕감 | 22 |
|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 22 |
| 2)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 | 26 |
| 3. 청소년의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 29 |

III. 연구 방법

| | |
|----------------------|----|
| 1. 연구모형 | 33 |
|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33 |
| 3. 연구도구 | 34 |
| 1) 가족탄력성 척도 | 34 |
| 2) 심리적 안녕감 척도 | 37 |
| 4. 자료 분석 | 40 |

IV. 연구결과

| | |
|---|----|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1 |
| 2. 연구대상자의 가족탄력성 | 44 |
| 3.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 45 |
|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 | 47 |
| 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 50 |
| 6.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탄력성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54 |

V. 결론 및 제언

| | |
|------------------|----|
| 1. 요약 및 결론 | 59 |
| 2. 제언 | 62 |

| | |
|------------|----|
| 참고문헌 | 64 |
|------------|----|

| | |
|----------------|----|
| Abstract | 69 |
|----------------|----|

| | |
|---------------|----|
| 부록(설문지) | 73 |
|---------------|----|

표 목 차

| | |
|-------------------------------------|----|
| <표 2-1> 가족탄력성의 정의 | 9 |
| <표 2-2> 강점관점의 가정 | 13 |
| <표 2-3> 결점관점과 강점관점 비교 | 15 |
| <표 2-4> 가족탄력성의 요인 | 17 |
| <표 2-5>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 | 27 |
| <표 3-1> 가족탄력성의 하위척도 | 35 |
| <표 3-2>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 | 38 |
|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42 |
| <표 4-2> 연구대상자의 가족탄력성 | 44 |
| <표 4-3>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 46 |
| <표 4-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 | 48 |
| <표 4-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 51 |
| <표 4-6>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 55 |
| <표 4-7>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 57 |

그림 목 차

| | |
|------------------------------------|----|
| <그림 2-1>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과 이론적 기초 | 25 |
| <그림 3-1> 연구모형 | 33 |

<국문초록>

중학생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 지 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중학생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에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 2곳 총 533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설문지법으로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조사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은 학년, 성적, 가족형태,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에서는 학년, 성적,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조직유형에서는 학년, 성적,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사소통유형에서는 학년, 성적, 가족형태, 경제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적이 좋을수록, 첫째일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

감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수용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 출생 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인관계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율성에서는 성적과 종교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삶의 목적에서는 성적과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배력에서는 학년,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가족탄력성과 가족탄력성 요인,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요인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독립변수인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약 26%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두고 보았을 때,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율성은 의사소통과정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가족탄력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요인이고 가족탄력성의 요인인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은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요인인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족탄력성 요인 의사소통과정은 심리적 안녕감 요인인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개발 및 그에 따른 후속연구가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탄력성이 낮게 나타난 중학교 3학년집단, 성적이 낮은 집단,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집단에 대한 가족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관련 배경변인인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탄력성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조부모와 부모-자녀 가족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러한 직계가족 형태의 가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가족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나는 집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족관련 배경요인인 출생순위에서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삶의 목적, 환경 지배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출생순위가 첫째에 속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집단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다른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역경을 대처하는 방식과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 즉 가족탄력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구하고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어 가족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에 위치하여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변화에 따른 많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 다양한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과업을 잘 달성해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적 요인 못지않게 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준다. 특히 환경적 요인은 다양한 심리·정서적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주는데,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며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추후 어떠한 성인으로 성장하는지를 좌우한다. 그 중 청소년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환경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이며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필수적인 환경의 체계이다. 즉 청소년에게 가족은 일차적 환경으로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사회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김익균, 2008). 또한 가족은 인격형성 및 심리·정서적 발달의 주된 장소이며 청소년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임영식, 한상철, 2000).

가족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사회와 함께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기능, 형태, 구조, 역할 등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가족 해체, 다양한 가족의 증가 등 가족문제가 발생하여 역기능적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이영숙, 박경란, 진귀연, 2008).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러한 사회 변화에 역기능적으

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역기능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작용하며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가족탄력성이다.

가족탄력성이란 기능적 단위로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단위에서 부딪치는 위기, 변화 등에 직면했을 때 주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말한다(김미옥, 2001. 재인용).

가족탄력성이 높은 가족은 가족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가족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적응한다. 그리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은 다른 가족원에게 협조하며 지지해준다. 하지만 역기능적이고 탄력적이지 못한 가족은 위기와 역경에 대해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며 위기상황과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역기능적 상황은 가족 전체의 어려움 뿐 아니라 가족원 개개인에게도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가 실시한 2012 청소년 통계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10명 중 7명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8%이며,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라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15~19세에서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등이며,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으며 10명중 2명은 음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1)에서는 청소년이 ‘일상 중 스트레스를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0.1%로 나타났으며,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픔 또는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가끔 또는 자주 경험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13.5%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3)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

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23개국 중 최하위인 23위인데, 심지어 22위 국가와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부적응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적응하면서 느끼는 정서와 감정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행복감 또는 전체적인 감정을 일컫는다. 이는 삶이 전체적으로 즐겁고 기쁘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그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라 할 수 있다(소선숙, 2012. 재인용).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기를 건강하고 적응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만족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성인기까지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구정화, 2005; 전유진, 2006; 천혜정, 임유미, 2007; 이성애, 2010; 박주연, 2011)와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김미옥, 2001; 이선애, 2004; 김고은, 2005; 박미숙, 2005; 김영주, 2007; 이상미, 2009; 최정주, 2009; 김종혜, 2011; 박은영, 2011; 왕영선, 2013)등 특수한 상황과 문제가 있는 가족에서의 가족탄력성을 연구하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족에 대한 가족탄력성을 연구한 논문은 희박하다. 또 탄력적인 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중 가장 활발한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는 중학생시기의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연구를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심리

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가족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며, 가족이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대처와 적응이 청소년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면서 가족이라는 환경체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등의 기대효과를 갖는다.

2. 연구문제

이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1) 청소년의 전반적인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가?
- 2)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 4)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사용되는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탄력성

Walsh(1998)는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이란 기능적 단위인 가족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대처방식과 적응의 과정이라 하였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와 역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 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가족의 생존과 안녕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김미옥, 2011. 재인용).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가족탄력성의 요인으로 보고 요인들의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외, 2002). 이 연구에서는 Walsh가 제시한 가족탄력성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인 측면들과 개인의 삶이 즐겁고 기쁘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등의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된다(소선숙, 2012). 이는 한 개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는가에 기준을 두고 있다.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으로 분류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6개의 하위 요인에 속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가족탄력성

1) 탄력성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탄력성(Resilience)은 ‘다시 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 등을 말한다. 하지만 탄력성은 ‘상처 받지 않음(invulnerable)’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기상황 즉, 역경에 있어서 잘 대처하고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유능감(efficacy)을 발휘함으로써 위기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추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미옥, 2001). 1970년대에서 1980년대의 아동발달전문가와 정신건강전문가들은 고위험에 노출된 아동문제와 청소년문제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이선애, 2004).

탄력성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lsh(1998)는 ‘역경에서 일어나 이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owan(1996)은 탄력성을 도전에 성공적으로 반응하고, 성공경험으로부터 성장되는 생리적인 강점과 심리적인 자원, 대인관계기술이라 하였다. 그리고 탄력성은 하나의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파워 있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Boss(2001)는 ‘변화나 불행에 적응하고 이를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Turner(2006)는 ‘역경에 직면하여 회복하는 능력이자 안녕의 상태로 지속해서 기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박주연, 2011. 재인용).

탄력성이 높으면 위기와 역경으로 변화된 환경에서도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내적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즉 탄력성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개인을 능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좌절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기능적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측면, 가족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환경적인 측면으로 제시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은정, 2007. 재인용).

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태평한 기질, 높은 지능, 자존감과 자신감, 자기효율성,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통제감(coherence) 등이라고 하였다.

가족적인 측면에서는 부모-자녀사이의 적합성, 가족의식(rituals)유지, 유아기 때 최소한의 갈등, 청소년기 부모의 이혼부재, 자녀-모 사이의 생산적 관계, 가족의 따뜻함과 애정, 정서적 지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족의 구조,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의 심한 불일치, 부모의 정신질환, 과밀한 주거환경, 제한된 부모의 능력 등은 개인탄력성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사회·환경 측면으로는 빈곤과 물리적 주거환경, 지역사회 심리·사회적 환경, 역할모델부재 등이 개인탄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 가족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연구들은 가족을 탄력성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해 가족을 탄력성의 자원으로 보지 않으며 가족에 대한 관점이 결점중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가족을 역동적인 단위로 보고자하며, 개인의 특성을 가족과 사회환경의 관계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밝힘으로써 보호요인을 강화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미옥, 2001).

가족탄력성은 개인의 탄력성과 달리 가족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보고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위기에 대한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직면한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며 완충시키는지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역경상황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강구는 모든 가족원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적응에 영향을 준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1990년대 가족학자들은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적인(positive adaptation) 가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들이 고위험상황에서도 적응하는 개인을 설명하는 개인탄력성 개념과 유사하다고 간주하여 가족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김미옥, 2001). 가족은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역기능적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안정과 변화에 균형을 이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Beaver와 Hampson(1990)는 탄력적인 가족은 가족원들 모두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보인다 하였다. 그리고 가족원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위기상황에 대한 냉정한 탐구 등의 낙관주의적 관점을 가진다고 하였다(박지현, 2009. 재인용).

김미옥(2001)은 여러 학자들이 가족 관련 문헌에 정의되어 지는 탄력성을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McCubbin & McCubbin(1988)은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응적이 되고, 변화를 받아들여 혼란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이라고 정의하였다.

Danielson Bissell & Fry(1993)는 가족단위에서 직면하는 위기와 변화, 스트레스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족의 잠재력 혹은 가능성이라 하였다.

The Family Resiliency Network of the USDA Extension Service에서는 가족탄력성을 삶의 도전을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하게 하는 강점으로 구성된 가족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Valentine과 Feinauer(1993)는 굵으러지고 압박을 받아 늘어진 뒤에도 기본적인 형태 혹은 자리로 되돌아가는 힘 또는 능력이라 하며 이 뿐 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라 하였다.

Wolin과 Wolin(1993)은 실패에서 회복하며(bounceback) 곤경으로부터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표 2-1> 가족탄력성의 정의

| 학 자 | 정 의 |
|---|--|
| McCubbin & McCubbin(1988) |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응적이 되고, 변화를 받아드려 혼란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 |
| Danielson Bissell & Fry(1993) | 가족단위에서 직면하는 위기와 변화, 스트레스로부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가족의 잠재력 혹은 가능성 |
| The Family Resiliency Network of the USDA Extension Service | 삶의 도전을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하게 하는 강점을 구성된 가족 능력 |
| Valentine과 Feinauer(1993) | 굽으러지고 압박을 받아 늘어진 뒤에도 기본적 형태 혹은 자리로 되돌아가는 힘 또는 능력,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
| Wolin과 Wolin(1993) | 실패에서 회복하며(bounceback) 곤경으로부터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 |

출처 : 김미옥(2001), 재구성.

즉 가족탄력성이란 가족단위에서 부딪치는 위기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혼란된 상황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적이고 다시 기존의 가족 형태와 기능으로 되돌아가 실패에서 회복하고 삶의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가족의 잠재능력이라 할 수 있다.

Walsh(1989)와 McCubbin(1988)은 가족탄력성의 개념을 가족체계이론에 적용하여 가족이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극복하고 손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으며 실패한 가족이 아닌 가족이 위기에서 다시 성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 정의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김미옥, 2001; 이선애, 2004; 김안자, 2005).

첫째,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역경과 위기에 직면 했을 때 외부로 나타나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발휘한다(김미옥, 2001). 이러한 능력은 가족규칙과 과정 안에서의 대응방식을 만들어 가족의 주변환경을 조절하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의 변화를 시도한다(김안자, 2005).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상황이 아닐 때는 잠재되어 있다가 가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변화에 대한 균형유지와 위기를 대처하게 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탄성(buoyancy)을 갖는다.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위기 이전의 기능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이 위기로부터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 기능적인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가족에 손상을 입히려는 변화에 저항하여 이전 가족기능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때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능상태가 될 수 있다.

셋째, 탄력성은 가족을 병리적(pathology)인 관점이 아닌 건강성(wellness)으로 보고자 한다. 즉 가족을 결점요인이 아닌 가족원의 건강한 기능에 기여하는 특성으로 본다. 그러므로 탄력성에 근거한 접근은 가족의 실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가족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성공하는지를 보려고 한다.

이를 정리하면 탄력성은 가족의 건강한 측면을 보는 개념으로 가족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가 위기와 역경이 발생하였을 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잠재력이다. 이러한 가족의 능력은 위기에 손상된 가족을 다시 이전의 기능적인 상태로 회복하게 한다.

즉 가족은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위기와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협동과 상호보완을 통해 환경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역경상황을 극복하고 원래 가족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구정화, 2005). 이는 가족의 안녕감을 유지하는 능력이며, 성공적으로 위기와 역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김안자, 2005).

양옥경 외(2002)는 가족의 유능감과 상호지지는 가족원의 협력을 격려할 수 있으며 역경 속의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고 공유되는 확신을 형성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이런 가족에 대한 접근은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고 가족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도전들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예방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족의 결점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와 역경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지, 가족의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강점을 개발하고 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스트레스와 역경으로부터 가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주연, 2011).

3) 가족탄력성의 이론적 기반

(1) 가족스트레스 모델

가족학자들은 가족의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견디고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가족과, 위기상황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가족의 취약성과 재생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발달에 대한 적합성과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가족들은 도전과 자원 사이, 그리고 가족생활의 다른 차원 사이에서 기능적 적합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이에 따라 ABCX모델, Double ABC-X모델, 가족조절과 적응의 유형 모델을 발전시켜 가족탄력성이론을 제시하였다.

Hill(1949)은 가족의 위기 혹은 스트레스 상황의 인과 모델로 가족의 위기상황에 대해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ABCX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가족스트레스이론 형성에 직접적 기초를 이루었다. Hill(1949)은 스트레스란 가족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생활 사건이라고 보고,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긴장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가족스트레스라 규정하였다(김은정, 2007. 재인용). ABCX모델은 스트레스요인이 되는 사건과 그 속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A요인이라고 하고, 가족이 위기와 역경에서 대처할 때 사용가능한 자원을 B요인, 그리고 스트레스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를 C요인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위기상황을 의미하는 X요인에게서 가족을 보호한다고 하였다(김미옥, 2001).

Hill(1949)의 ABCX모델은 McCubbin과 Patterson(1983)에 의해 Double ABC-X모델로 확장되었다. 이 모델은 위기 전 요인들에 대해 재규정하고, 위기

후의 요인을 추가시켜서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가족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요인인 대처와 사회적 지지 등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적인 면과 위기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김미옥, 2001).

Double ABCX 모델은 적응 단계를 확대시켜 ‘가족조절과 적응의 유형모델 (Typology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로 발전시켰다. 이 모델은 가족의 기능유형을 강조하고 적응단계를 확장한 것으로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수준을 결정과 관련되는 요소로 가족유형과 가족도식을 포함하였다(구정화, 2005).

이러한 모델들을 종합하여 McCubbin은 가족스트레스모델을 제시하였다. 가족스트레스모델의 핵심으로 가족 내에서 긴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족의 내구력, 인지적인 평가, 의사과정, 사회적 지지 등의 영향으로 가족원의 신체·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가족적응이 달라진다고 하였다(김은지, 2007).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족원들의 상호작용과 가족구조 안에서 보며, 가족체계에서 스트레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족스트레스이론은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과 정도, 가족의 자원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하는 지에 대한 과정을 통해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보고 있다(오승환, 2001; 이원숙, 2007).

즉, McCubbin의 모델에서 가족탄력성이란 가족의 스트레스 또는 역기능적인 상황에서의 긍정적 행동유형과 기능적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스트레스모델에서의 스트레스는 가족의 변화를 수반한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가족강점과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연구와 개입의 초점을 두고 있다(Luthar, 2000).

(2) 강점관점

강점(strengths)의 기본적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와 같은 체계를 바라봄에 있어 가능성과 재능, 능숙도 그리고 능력과 비전, 가치와 희망 등에 긍정적 시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정순돌, 2006). 김은정(2007)은 강점관점은 누구든지 생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가지며 문제에 대한 대처와 해결 가능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고 하였다.

Saleebey(1992)가 제시한 강점관점의 기본가정은 <표 2-2>과 같다.

<표 2-2> 강점관점의 가정

강점관점의 가정

1. 인간은 성장과 변화를 위한 개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클라이언트는 이미 체계는 변화를 유발하는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3.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가지는 강점을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해야 한다.

4. 긍정적 변화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다.

5. 클라이언트체계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지각하며 선택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한 해결을 할 수 있다.

6. 체계의 결점의 결점을 보는 것이 아닌 체계 간의 상호교류에서 관심이 되는 이슈와 도전을 본다.

출처 : 김미옥(2001). 재구성.

강점관점은 상황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강점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며, 이러한 시도는 개인을 성장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가족 분야의 연구들은 과거의 결점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있어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 또한 강점관점에 기원을 두고 있다(김미옥 2001). 가족탄력성은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으로 고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가족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둔다(박지현, 2009).

강점관점은 가족탄력성을 가족의 손상을 보던 것에서 어떻게 역경과 같은 도전을 견디게 되었는지를 보는 시각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가족이 변화와 역경

으로부터 살아남고 다시 가족의 원기능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가족의 위기와 도전으로부터 회복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가족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가족탄력성 관점은 이전의 결점중심 관점(deficit-based approach)에서 벗어나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강점중심 관점(strength-based approach)이라 할 수 있다. 강점관점에서의 문제는 변화를 위한 도전으로 간주되며, 결점관점이 과거지향적 관점이라면 강점관점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인혜, 2007). 즉 강점관점은 가족을 손상되고 위기상황에 있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가족의 강점을 보는 것으로 역경에 처한 가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뿐 아니라 가족의 성장을 이루는 지를 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Saleebey(1996)는 결점관점과 강점관점의 차이를 <표 2-3>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3> 결점관점과 강점관점 비교

| 결점관점 | 강점관점 |
|---|--|
| 개인을 진단에 따라 증상을 가진 자로 규명한다. | 개인을 독특한 존재이며 강점 즉, 기질, 재능, 자원을 가진 자로 규명한다. |
| 치료의 초점이 문제에 있다. | 치료의 초점이 가능성에 있다. |
|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전문가에 의해 재해석 되어 진단에 활용한다. |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사람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
|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회의적이다. |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 |
| 어린시절의 상처로 성인기의 병리를 예측 할 수 있다. | 어린시절의 상처는 개인을 약하게 혹은 강하게 할 수 있다. |
| 치료의 핵심은 전문가에 의해서 고안된 치료계획이다. | 치료의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이다. |
| 상담자(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다. | 개인, 가족, 지역사회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이다. |
| 개인적 발전은 병리에 의해 제한된다. | 개인적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
|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 변화를 위한 자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장점, 능력, 적응기술이다. |
| 원조 목적은 행동, 감정, 사고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개인적·사회적 결과와 증상에 관한 감소이다. | 원조 목적은 사람이 삶을 함께 하고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

출처 : 김은정(2007). 재구성.

위와 같이 강점관점은 가족의 문제보다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강점을 강화시키는지에 중점을 둔다. 역경과 어려움은 가족의 혼란을 부르고 가족체계를 해체시키는 것이 아닌,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에 있어 가족의 자원을 활용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안녕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박지현, 2009).

4) 가족탄력성의 요인

McCubbin과 McCubbin(1996)의 가족탄력성모델과, 가족이 스트레스에 견디고 위기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밝히는 Walsh(1998)의 이론을 가족탄력성의 중요한 이론적 틀로 제시하였다(현은민, 2008). 가족탄력성의 요인들은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 강조한 요인이 달라서 가족탄력성의 요인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일정 부분 공통성을 가지고 있거나 중복되는 면이 있다(김미옥, 2001; 이선애, 2004; 김안자, 2005).

Cowen과 Hetherington(1992)은 가족탄력성의 요인으로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Silliman(1994)은 위험,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시간공유, 효율성 등을 가족탄력성의 요인이라 말했다. 또한 Barnard(1994)는 부모-자녀 간 적합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자녀와 생산적 관계 등을 가족탄력성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Singer와 Powers(1993)의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의 요인으로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balanced coping), 유연한 상호의존(flexible interdependence)을 제시하고 있다. McCubbin 외(1993)는 가족스트레스이론에서 발전한 가족형태, 가족스키마,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을 가족탄력성 요인이라 하였고, Walsh(1998)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을 가족탄력성 요인으로 구성하였다(김미옥, 2001; 이선애, 2004; 김안자, 2005).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가족탄력성의 요인을 정리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가족탄력성의 요인

| 학 자 | 요인 |
|------------------------------|---|
| Cowen과 Hetherington(1992) |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 |
| Silliman(1994) | 위험,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시간공유, 효율성 |
| Barnard(1994) | 부모-자녀 간 적합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자녀와 생산적 관계 |
| Singer와 Powers(1993) |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balanced coping), 유연한 상호의존(flexible interdependence) |
|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93) | 가족형태, 가족스키마,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
| Walsh(1998) |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

출처 : 김미옥(2001), 이선애(2004), 김안자(2005)

다수의 가족탄력성 이론들은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Walsh(1998)는 각 요인들의 구체적이고 이론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가족탄력성을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강점관점을 가족탄력성의 관점으로 제시하였다(김안자, 2005). 그리고 가족의 건강한 기능과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의 역동적 과정과 관계의 질을 살펴보았다(김은한, 유서구, 2012). 이는 가족의 역동적인 실체인 특성을 반영하며 가족을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Walsh(1998)가 제시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을 가족

탄력성의 요인으로 살펴보고, 연구의 주요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미옥, 2001;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양옥경외 5인, 2004; 김은정, 2007; 박지현, 2009; 천혜정, 임유리, 2007; 박주연, 2011).

(1) 신념체계(Family belief systems)

신념체계는 가족기능의 핵심이자 가족탄력성의 강력한 힘이다. 신념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본질이다. 유익한 신념은 문제해결 및 치료, 성장의 대안을 증가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만, 무리한 신념은 문제를 영속시킬 뿐 아니라 대안을 제한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신념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억제하며,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는 신념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변화하게 한다(김은정, 2007; 박주연, 2011).

어떻게 신념체계가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가족의 위기와 역경에 대한 관점과 행동이 달라지며(박지현, 2009), 신념체계는 가족응집력을 제공해 가족구성원들이 역경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경험을 조직화한다. 또한 가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기와 역경이 아닌 새로운 도전에 접근하는 방식의 의미 있는 방향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족의 강점과 잠재력을 부각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비전을 갖도록 한다(박주연, 2011).

신념체계의 하위요인은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으로 구성되고 있다.

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Making meaning of adversity)는 가족들이 위기상황에 대한 해석과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가족탄력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명료화하는 능력이다(김은정, 2007).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를 하나의 도전으로 인식하며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수용하도록 한다. 반면, 역기능적 가족의 경우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의 시간의 경과와 연속성에 대한 역동적 시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김미옥, 2001).

② 긍정적 시각

가족의 역경과 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Positive outlook)을 가지면 가족 강점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게 한다(박주연, 2011). 역경과 위기상황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가족은 강점과 잠재력 중점으로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용한다(박지현, 2009).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원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③ 초월과 영성

초월과 영성(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은 보다 높은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과 위기를 통해 배우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자세를 갖게 한다(양옥경 외 5인, 2004). 탄력적인 가족은 문제의 원인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주변 환경체계를 같이 고려하는 순환적인 관점에서 살핀다(김은정, 2007).

(2)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조직유형은 가족이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가족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본다. 가족이 위기와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사용해야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중재하며, 변화에 적절한 재조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유형은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되며 가족의 통합을 지지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내·외적 규범을 유지한다(김은정, 2007; 박주연, 2011).

조직유형은 융통성, 연결성,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① 역할 안정성 및 융통성

역할 안정성 및 융통성은 가족이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규칙과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안전성과 가족의 역할분담 및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융통성을 동시에 활용하는 능력이다(천혜정, 임유리, 2007).

이는 가족의 조직과정에서 안정성(homeostasis)과 변화(morphogenesis)와의 역

등을 통해 위기에 반응하고 변화를 허용함과 동시에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박지현, 2009). 그리고 위기나 역경의 상황에서 가족 내의 규칙과 역할변화가 필요할 때 안정된 역할분담을 가능하게 하며 역할분담 시에 융통성을 나타낸다(김미옥, 2001). 역할안정성 및 융통성을 통해 가족은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성 있는 가족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연결성

연결성(connectedness)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연대감을 말한다. 즉, 가족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분화를 인정하면서 가족의 연합, 상호 지지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구성원들은 개개인으로서 독립적이고 분화됨과 동시에 가족이란 체계로 상호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은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서로를 지지하며 의지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게 된다(박주연, 2011).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개인의 강점을 조직할 수 있다(김미옥, 2001).

③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

사회 및 경제적 자원(Social and economic resources)이란 가족 내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의 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탄력적인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며, 가족구성원들이 외부체계에 활발히 참여한다. 그리고 낙관적인 관점과 희망을 가지고 유용한 가족 주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김은정, 2007).

(3) 의사소통 과정(Communication processes)

넓은 의미에서의 의사소통은 사회·경제적, 실질적, 도구적 문제해결 등을 포함하는 정보교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의사소통은 실제적인 정보와 의견,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content)의 측면과 관계의 본질을 정의하는 관계(relationship)측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박주연, 2011). 의사소통의 세 가지 중요한 요인으로 명료성,

개방적인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① 명료성

명료성(Clarity)은 의사소통과정에서 혼란을 주지 않고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교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료한 의사소통은 효율적 가족기능의 본질적 요소로 명확하고 일관된 말과 행동을 말하여, 모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왜곡되거나 미해결된 상태에 있을 때 가족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킨다. 또한 침묵, 비밀, 왜곡 등으로 인해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정보는 가족의 이해와 충분한 의사소통, 진정성 있는 관계에 대한 장애물을 만든다. 위기의 순간과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명료성은 매우 도움이 되고 가족 구성원의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가족적응과 대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② 개방적인 정서표현

가족구성원간의 신뢰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정서표현에 의해 강화된다. 개방적인 정서표현(Open emotional expression)은 비난이 아닌 자연스럽게, 감정과 욕구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개방적인 정서표현을 사용하는 가족은 즐거움, 희망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물론이고, 고통,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까지 다양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이 표현한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박주연, 2011). 또한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생활을 재조직한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정서표현은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공감적인 정서반응,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감정의 동요와 관용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따라서 가족구성원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을 통하여 역경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 보다 탄력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박주연, 2011).

③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은 특히 갑자기 닥친 위기

나 역경을 다루어야 하는 가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박지현, 2007). 갈등과 문제가 없는 가족은 없으며, 모든 가족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탄력적인 가족은 문제를 가족원이 함께 잘 다스려 나가는 가족이다(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2002).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가족원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박주연, 2011).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은 역경상황을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현재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은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을 잃지 않으며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가족이 서로 상호지지하며 가족외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 가족원들은 명확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개방적이고 솔직해야 하며,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한다.

2. 심리적 안녕감

1)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

최근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개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행복이란 삶의 질의 근원적 측면으로 삶의 질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Keyes, 2006).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궁극적 목표이며, 모든 국가 또는 사회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행복 혹은 삶의 질 증진을 가장 의미있는 목표로 삼고 있다(김수희, 2011). 국내에서도 행복, 웰빙, 복지감,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안녕감, 주관적 안녕, 심리적 안녕 등의 용어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조호운, 2011).

행복에 기반한 철학적 주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며, 심리학에서는

쾌락주의적 관점(hedonic tradition)과 자기실현적 관점(eudaimonic tradition)으로 각각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분류하고 있다. 쾌락주의적 입장인 주관적 안녕감은 인생에 대한 인지·정서적 평가를 의미하며, 개인의 삶의 질은 육체적 즐거움이나 욕구와 흥미 등의 광의적 개념의 쾌락이 얼마나 만족되었는가로 알 수 있다(강명희, 2012. 재인용).

주관적 안녕감은 높은 삶의 만족도와 적은 부적 정서경험, 그리고 많은 정적 정서경험의 수준으로 높고 낮음을 알 수 있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며 낙천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외향적이며, 영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있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김기형, 2008).

사람들은 기쁘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고 나아가면서 만족감을 경험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은 단순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이렇게 삶의 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혜은, 2008). 주관적 안녕감은 성격과 문화, 감성적인 측면, 인지적 측면과 연관시켜 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김기형, 2008). 그러나 긍정정서와 삶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행복을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주관적 안녕감의 이러한 접근은 심리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실제적으로 잘 기능하느냐에 기준을 두는 자기실현적 관점에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강명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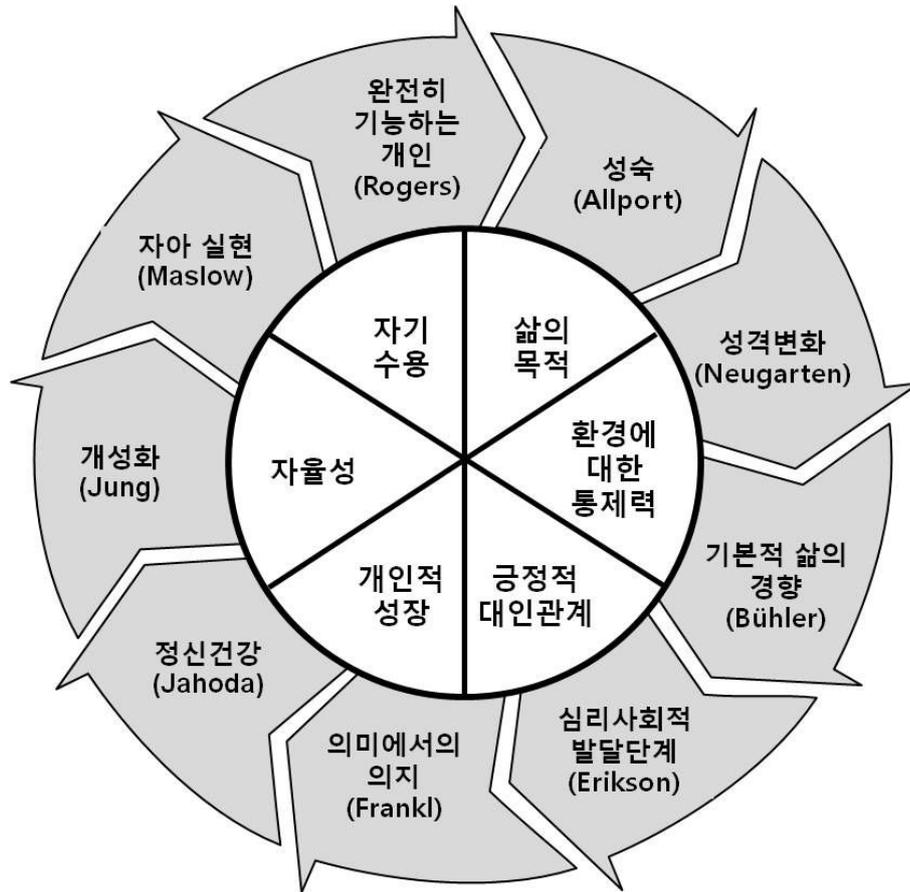
행복에 대한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는 Ryff(1989)는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입장을 비판하였으며 자기실현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의 이론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함으로 얻어지는 행복에 초점을 둔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행복을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자들은 심리적 안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김기형, 2008. 재인용).

자기실현적 관점에서의 행복은 자기성장과 실현을 통해 느껴지며, 최고의 선, 진정한 자기와 일치하는 삶, 완전히 기능하는 삶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소선숙, 2012. 재인용). 욕망이 성취된 모든 결과들이 쾌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결과들은 유의하지 않거나 이러한 결과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행복의 일부분인 긍정정서는 목적이 성취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실현과정에서 나오는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1). 즉 이 관점에서 행복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타인과 다른 자신의 독특성을 인식해 개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욱더 노력하여 발전시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실현적 입장의 대표적 학자인 Ryff(1989)는 좋은 삶에 대해서 임상, 상담, 그리고 발달심리학의 여러 이론들, 즉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psycho social stage), Buuhler의 기본적인 삶의 경향(basic life tendencies), Neugarten의 성격의 변화(personality changes), Frankl의 의미에서의 의지(will to meaning), 그리고 Jahoda의 정신 건강(mental health)등을 기초로 하여 <그림 2-1>과 같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6개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개발하여 많은 실증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험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강명희, 2013. 재인용).

<그림 2-1>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과 이론적 기초



출처 : 강명희(2013). 재구성

위 내용을 정리하면 쾌락주의적 입장인 주관적 안녕감에서 말하는 행복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 느끼는 쾌락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다. 자기실현적 입장인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행복은 욕구를 추구함에 있어 노력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주관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의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된 관점에서의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eligman(2006)은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통합하여 행복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서의 행복은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 몰입하는 삶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즐거운 삶(pleasant life)은 쾌락주의적 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삶을 말한다.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은 행복에 대한 자기실현적 입장에 속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삶을 뜻한다. 몰입하는 삶(engaged life)은 어떠한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삶을 의미한다(임영진, 2010. 재인용).

여러 긍정심리연구자들은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설진미, 2006; 김경숙, 2007; 조윤주, 2007). 고미영(2010)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김명소 외 2인(2001)은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심리적 측면들을 종합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으로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요인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김혜은, 2010; 소선숙, 2012; 강명희, 2012).

<표 2-5> 심리적 안녕감의 요인

| 요 인 | 정 서 |
|-------------|--|
| 개인적 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됨을 느낀다. -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 - 자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
| 자아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자신의 다양한 측면들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다. |
| 긍정적 대인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는다. - 타인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 강한 애정과 친밀감, 공감을 느낄 수 있다. - 대인관계란 주고 받는 것임을 안다. |
| 자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단력이 있고 독립적이다. - 지정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사회적 억압에 저항한다. - 내적 동기에 의해 조절된다. - 개인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
| 삶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목표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 -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낀다. - 왜 사는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신념을 지닌다. - 생활에 목표와 목적이 있다. |
| 환경 지배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환경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 - 복잡한 외적 활동 계획을 조절한다. - 주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개인적인 필요나 가치에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한다. |

출처 : 강명희(2012), 재구성

①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개인적 성장은 자신이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그로 인해 자신이 발전되어 감을 느끼고 또한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장점을 찾아 효율적으로 삶에 반영한다. 하지만 개인적 성장이 더딘 사람은 침체에 쉽게 빠지며, 시간에 따라 성장이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하며 좌절감을 느낀다. 또한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새로운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② 자아수용(self acceptance)

자아수용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과거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수용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고, 과거과업에 대해 후회하고 실망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

③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타인과 따뜻하고 관계가 만족스러우며 신뢰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높은 공감능력이 있으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과 친밀하고 신뢰관계를 맺지 못하며 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고립되고 인간관계에 있어 좌절이 있으며 타인과 타협하지 않으려 한다.

④ 자율성(autonomy)

자율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결정적이고 독립적이다. 사회적 억압에 저항해 자신의 주장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고, 개인 내적인 힘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한다.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의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풍토를 따른다.

⑤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삶의 목적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다. 삶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체계를 갖는다. 삶의 목적이 명확하지 못한 사람은 삶의 방향을 모르고, 과거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미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과 태도가 부족하다.

⑥ 환경 통제력(environment mastery)

환경 통제력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처리능력과 이에 대한 통제감을 말한다. 자신의 환경적 조건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나 욕구에 적절한 환경을 선택하고 개발한다.

이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바르게 인지하고 수용하며 독립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에 대한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자신과 외부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항상 성장하고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

3. 청소년의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기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족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 한부모가족 등의 특수한 상황에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족이 인지하는 가족탄력성 연구는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활

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있는 가족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선애(2004)의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족탄력성은 가족적응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변인이고, 가족탄력성, 스트레스, 가족의 사회경제적 변인, 아동의 질병 등의 변인 중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박미숙(2005)은 가족탄력성이 비장애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조직유형과 의사소통이 비장애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전유진(2006)은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인혜(2008)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과정이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이성애(2010)의 한부모 가족과 양부모 가족 청소년의 가족탄력성이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양부모와 한부모 가족 청소년은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가족탄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양부모 가족에서 더 많이 작용하며, 한부모 가족이 가족탄력성 조절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박주연(2011)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가족탄력성 변인이 한부모와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입증하였다. 즉, 한부모와 자녀가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김정자(2012)는 중·고등학생의 손자녀가 있는 조손가족의 가족생활특성과 우울감이 가족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손 가정의 손자녀들은 가족탄력성 점수가 중간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정도가 낮으면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종합해보면,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이며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또 가족탄력성은 비장애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가족적응을 잘 설명하며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하는 논문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하는 논문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 가족 관련 변인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기형(2006)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가족적응성, 대학생의 가족응집력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김혜은(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고, 남학생은 아버지의 평가적 지지가 여학생은 어머니의 평가적 지지와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유리(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부모-자녀의사소통과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이 있으며 부모화경험이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낮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황아람(2010)은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불안이나 회피애착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의 상관을 보이며 안정애착이 형성될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조호운(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의 변인인 가족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학생은 가족단절, 여학생은 가족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희(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통제보다는 돌봄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김용희(2012)의 연구에서는 불안정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명조(2013)는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 양육태도에서 애정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라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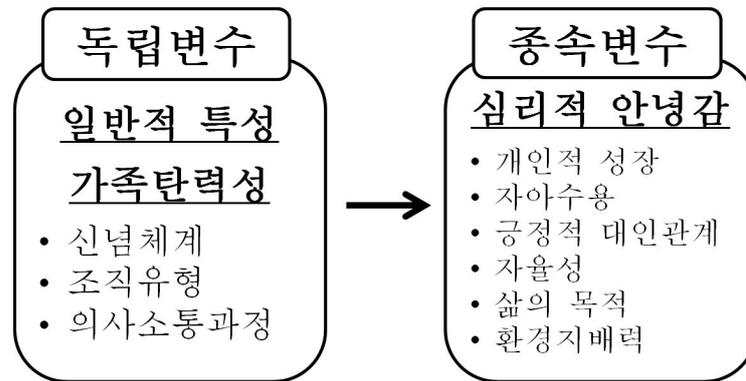
이를 종합했을 때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가족관련 변인으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력, 가족기능의 의사소통,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돌봄의 양육태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부모화경험, 부모와의 애착 등이 있다고 정리된다.

이와 같이 높은 가족탄력성은 청소년의 생활 및 심리·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관련 여러 이론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그림 3-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를 가족탄력성과 일반적인 특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심리적 안녕감을 두었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이 연구는 제주시내에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 1곳과 제주시 외곽 지역에 있는 남녀공학 중학교 1곳, 총 2개 학교의 1·2·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2013년 6월 8일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실시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한 수정과 측정 도

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실시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2013년 6월 15일부터 7월 26일에 걸쳐 학교 당 300부씩 총 6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533(89.1%)부가 회수되고 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가족탄력성 척도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이론을 근거로 하여 박주연(2011)이 원자료를 번역하여 구성한 자녀용 가족탄력성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고, 지도교수와 관련 전문가 3인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Walsh(1998)의 가족탄력성 요인인 신념체계(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조직유형(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의사소통과정(명확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등 3개 영역 총 30문항으로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가족탄력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 값(Chronbach's α)은 .966으로 나타났다.

<표 3-1> 가족탄력성의 하위척도

| 가족탄력성의 하위척도 | 문항수 | 문항번호 |
|-------------|-----|--|
| 신념체계 | 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조직유형 | 8 | 13, 14, 15, 16, 17, 18, 19, 20 |
| 의사소통과정 | 10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전체 | 30 | |

(1) 신념체계

이 연구에서는 신념체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하위영역으로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할 때 더 잘된다 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앞뒤를 잘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과 및 그 해결책을 곰곰이 생각한다’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긍정적 시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잠재력과 힘을 발휘해서 서로 격려하여 어려움을 극복한다’, ‘적극적으로 잘하려는 의지로 밀고 나간다’, ‘가능성을 탐색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초월과 영성을 측정하기 위해 ‘보다 더 큰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믿음과 서로간의 지지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위로해 나간다’,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의적, 사회적으로 행동한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념체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소 12점에서 최고 6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념체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조직유형

조직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을 포함한 세 영역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먼저 융통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다시 목표를 세워 변화를 받아들인다’,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돕는다’,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며 보호해주고 이끌어 나가며, 필요할 때 협력하여 책임을 가지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결성은 ‘서로 돕고 같이 일하고 헌신한다’,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각자 사생활을 존중한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구성된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활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친척, 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배워갈 대상을 찾는다’,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일과 가족사이의 조화를 이룬다’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조직유형은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최소 8점에서 최고 4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유형이 높다.

(3) 의사소통과정

명확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의 하위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과정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분명하고 한결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 ‘근거 없거나 애매한 이야기가 아닌 진실만을 추구하고 이야기한다’의 2문항으로 구성된다.

개방적인 정서표현은 ‘기쁨, 고통, 희망, 절망 등 어떠한 감정도 서로 나눈다’, ‘서로 공감하고 서로간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머를 가지고 서로 같이 즐겁게 생활한다’로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호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음으로써 좀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간다’,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협상과 공정성, 서로의 관계를 갖춘다’,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해결책을 세우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며 실패로부터 배워 나간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와 같이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과정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소 10점에서 최고 5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과정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심리적 안녕감 척도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등(2001)이 한국판 성인용으로 번안한 것을 김기형(2006)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고, 지도교수 및 관련 전문가 3인을 통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대인관계, 자아수용의 6개 차원으로 3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총 34점에서 17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척도에 대한 전체 신뢰도 값(Chronbach's α)은 .867으로 나타났다.

<표 3-2>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

|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척도 | 문항수 | 문항번호 |
|---------------|-----|----------------------------|
| 개인적 성장 | 6 | 1*, 16*, 24, 27*, 29*, 33* |
| 자아수용 | 6 | 2, 6, 13, 18, 28, 30 |
| 긍정적 대인관계 | 5 | 3*, 7*, 14*, 20, 34* |
| 자율성 | 6 | 4, 10, 15*, 22, 26*, 31 |
| 삶의 목적 | 6 | 5*, 8*, 12*, 17*, 21, 25 |
| 환경지배력 | 5 | 9, 11*, 19, 23, 32 |
| 전체 | 34 | |

* 역문항 표시

(1) 개인적 성장

개인적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내 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 하지 못했다',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의 6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성장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자아수용

자아수용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현재 결과에 만족한다',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나는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나 자신을 친구나 친척들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수용이 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긍정적 대인관계

긍정적 대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내 고민을 털어놓을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의 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4) 자율성

자율성은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나는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편이다', '나는 시간 활용을 잘해서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맞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 세우지 못한다', '나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5)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낭비였던 것 같다', '가끔 매일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내가 세운 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이다. 삶의 목적은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목적이 강함을 알 수 있다.

(6) 환경지배력

연구대상자의 환경지배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나의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만들어 올 수 있었다'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지배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들을 각 문항에 대해 점수처리 한 후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하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일반적인 배경과 변인들 간의 관계, 변인과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각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이 연구에서는 제주시 내 중학생 533명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종교, 가족형태, 부모의 학력, 경제력, 부모의 부재 이유,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표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533)

| 구분 | | N | % | 구분 | | N | % |
|------|------------|-----|------|----------------------|----------------------|------|------|
| 성별 | 남 | 250 | 46.9 | 경제력 | 잘산다 | 125 | 23.5 |
| | 여 | 283 | 53.1 | | 보통이다 | 353 | 66.5 |
| 학년 | 중 1 | 106 | 19.9 | | 어렵다 | 53 | 10.0 |
| | 중 2 | 108 | 20.3 | 아버지 부재 | 사망 | 6 | 10.7 |
| | 중 3 | 319 | 59.8 | | 이혼 | 22 | 39.3 |
| 성적 | 잘한다 | 126 | 23.7 | | 별거 | 19 | 33.9 |
| | 보통이다 | 225 | 42.3 | 기타(가출 등) | 9 | 16.1 | |
| | 못한다 | 181 | 34.0 | 어머니 부재 | 사망 | 5 | 11.1 |
| 출생순위 | 첫째 | 183 | 35.5 | | 이혼 | 24 | 53.3 |
| | 중간 | 76 | 14.7 | | 별거 | 9 | 20.0 |
| | 막내 | 216 | 41.9 | 기타(가출 등) | 7 | 15.6 | |
| | 외동 | 41 | 7.9 | 아버지 직업 | 전문관리직 | 91 | 21.1 |
| 종교 | 기독교 | 76 | 14.3 | | 판매서비스직 | 38 | 8.8 |
| | 천주교 | 37 | 6.9 | | 생산직 | 66 | 15.3 |
| | 불교 | 116 | 21.8 | | 사무직 | 134 | 31.0 |
| | 무교 | 280 | 52.5 | | 자영업 | 60 | 13.9 |
| | 기타 | 24 | 4.5 | 농.어.축업 및 기타(무직,학생포함) | 43 | 10.0 | |
| 가족형태 | 부모+자녀 | 391 | 73.5 | 어머니 직업 | 전문관리직 | 100 | 22.4 |
| | 조부모+부모+자녀 | 46 | 8.6 | | 판매서비스직 | 68 | 15.2 |
| | 한부모가족 | 77 | 14.5 | | 생산직+자영업 | 44 | 9.8 |
| | 기타(조손가족 등) | 18 | 3.4 | | 사무직 | 74 | 16.6 |
| 부학력 | 고졸 이하 | 169 | 37.7 | | 주부 | 131 | 29.3 |
| | 대졸 | 221 | 49.3 | | 농.어.축업 및 기타(무직,학생포함) | 30 | 6.7 |
| | 대학원졸 이상 | 58 | 12.9 | | | | |
| 모학력 | 고졸 이하 | 190 | 41.7 | | | | |
| | 대졸 | 223 | 48.9 | | | | |
| | 대학원졸 이상 | 43 | 9.4 | | | | |

* 무응답은 결측치 처리 함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250명 46.9%, 여학생이 283명 53.1%로 여학생이 조금 많았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 106명으로 19.9%, 2학년 108명으로 20.3%, 3학년은 319명으로 53.1%이다.

성적은 '잘한다'가 23.7%, '보통이다'가 42.3%, '못한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34.0%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가 35.5%, 중간인 출생순위가 14.7%, 막내가 41.9%, 외동이 7.9%로 첫째와 막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종교에서는 기독교는 14.3%, 천주교는 6.9%, 불교는 21.8%, 무교가 52.5%, 기타가 4.5%로 불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73.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부모가족이 14.5%, 조부모와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8.6%, 조손가족을 포함한 기타의 형태를 가지는 가족이 3.4%로 나타나고 있다.

부의 학력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7%, 대학교 졸업이 49.3%, 대학원 졸업 이상이 12.9%인 가운데,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1.7%, 대학교 졸업이 48.9%, 대학원 졸업 이상이 9.4%로 전반적으로 부의 학력이 모의 학력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족의 경제력을 살펴보면 '잘산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23.5%, '보통이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66.5%, 어렵다가 10.0%이다.

연구대상자의 부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21.1%, 판매·서비스직이 8.8%, 생산직이 15.3%, 사무직이 31.0%, 자영업이 13.9%이며 농·어·축업 및 무직, 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 직업이 10.0%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이 22.4%, 판매·서비스직이 15.2%, 생산직과 자영업이 9.8%, 사무직이 16.6%, 주부가 29.3%, 농·어·축업 및 무직, 학생 등을 포함한 기타 직업이 6.7%로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가족탄력성

연구대상자의 전체적인 가족탄력성의 현황과 각 요인이 어떠한 점수를 나타내며, 또 각 요인들의 하위변인별로 어떠한지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연구대상자의 가족탄력성

(n=533)

| 구분 | | M | SD | |
|-----------|--------|-------------|--------|-------|
| 가족 탄력성 | 신념체계 | 역경 | 15.00 | |
| | | 긍정적 시각 | 14.78 | |
| | | 초월과 영성 | 14.90 | |
| | 전체 | | 44.68 | 8.075 |
| | 조직유형 | 역할 안정성과 융통성 | 10.96 | 2.329 |
| | | 연결성 | 11.14 | 2.378 |
| | | 가족의 자원 | 7.15 | 1.490 |
| | | 전체 | 29.25 | 5.333 |
| | 의사소통과정 | 명확성 | 6.88 | 1.596 |
| | | 개방된 정서표현 | 14.60 | 2.944 |
| | |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 14.61 | 2.974 |
| | | 전체 | 36.10 | 6.748 |
| 전 체 | | 110.05 | 18.894 | |

가족탄력성은 최소점이 30점에서 최고점이 150점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평균 점수가 110.05점으로 연구대상자의 가족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념체계는 최소점이 12점이고 최고점이 60점으로, 전체 평균이 44.68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신념체계의 하위변인 별로 살펴보면, 최소점 4점, 최고점 20점으로 보았을 때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는 평균 15.00점, 긍정적 시각

은 평균 14.78점, 초월과 영성은 평균 14.90점 순으로 모두 평균점수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조직유형은 최소점 8점, 최고점 40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조직 유형 평균이 29.25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결성 및 역할안정성과 융통성은 최소점 3점, 최고점 15점이며, 역할안정성과 융통성 10.96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다. 연결성은 최소점이 2점이고 최고점이 15점으로 이 연구의 대상자들의 11.14점, 그리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은 최소점 2점 최고점 10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 7.15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소통과정에 대해서는 최소점 10점, 최고점 50점이며 연구대상자의 평균점수는 36.10점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위변인별로 보면 명확성의 최소점이 2점, 최고점이 10점으로 평균점수가 6.88점인 것을 보았을 때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방된 정서표현과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모두 최소점 4점, 최고점 20점이며, 이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각각 14.60점, 14.61점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3.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과 그 하위요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표 4-3>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n=533)

| 구분 | M | SD |
|-------------|--------|--------|
| 개인적 성장 | 18.93 | 3.706 |
| 자아수용 | 19.63 | 4.092 |
| 긍정적 대인관계 | 16.88 | 3.200 |
|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 19.03 | 2.803 |
| 삶의목적 | 19.32 | 3.78 |
| 환경지배력 | 15.89 | 2.728 |
| 전 체 | 109.70 | 13.795 |

심리적 안녕감의 전체 점수의 최소점은 34점이며, 최소점이 170점으로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평균 점수는 109.70점으로 나타나 평균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 성장은 최소점 6점, 최고점 30점으로 평균점수가 18.93점으로 나타나 평균점수보다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수용 역시 최소점 6점, 최고점 30점이며, 연구대상자의 자아수용 평균점수는 19.63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대인관계는 최소점 5점, 최고점 25점으로 평균점수가 16.88점으로 나타나 평균점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율성은 최소점 6점, 최고점 30점이며 평균점수가 19.03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삶의 목적의 최소점 6점, 최고점 30점으로 보았을 때 평균점수는 19.32점이며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지배력에서는 최소점이 5점, 최고점이 25점으로 연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평균보다 높은 15.89점이다.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은 <표 4-4>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탄력성

| 변수 | | 신념체계 | | 조직유형 | | 의사소통과정 | | 전체 | |
|-------|-----|---------------|-----|--------------|-----|--------------|-----|--------------------|-----|
| | | M(SD) | DMR | M(SD) | DMR | M(SD) | DMR | M(SD) | DMR |
| 성별 | 남 | 45.12(8.669) | | 29.37(5.581) | | 35.96(6.983) | | 110.45 (20.037) | |
| | 여 | 44.30(7.507) | | 29.15(5.112) | | 36.22(6.543) | | 109.69 (17.852) | |
| | t값 | 1.149 | | .460 | | -.453 | | .463 | |
| 학년 | 중1 | 47.20(8.824) | b | 30.92(5.859) | b | 37.97(7.052) | b | 116.10(20.237) | b |
| | 중2 | 44.55(8.696) | a | 29.32(5.979) | a | 35.99(7.260) | a | 109.87(20.958) | a |
| | 중3 | 43.89(7.429) | a | 28.68(4.792) | a | 35.52(6.366) | a | 108.10(17.267) | a |
| | F값 | 6.853*** | | 7.198*** | | 5.340** | | 7.308*** | |
| 성적 | 잘한다 | 48.41(6.536) | c | 31.36(4.264) | c | 38.50(5.583) | c | 118.27(14.890) | c |
| | 보통 | 45.84(7.821) | b | 29.84(5.397) | b | 36.77(6.934) | b | 112.46(18.957) | b |
| | 못한다 | 40.64(7.688) | a | 27.05(5.173) | a | 33.61(6.500) | a | 101.31(17.956) | a |
| | F값 | 44.599*** | | 29.430*** | | 23.133*** | | 37.631*** | |
| 종교 | 기독교 | 45.19(8.547) | | 29.84(5.364) | | 36.76(6.116) | | 111.80(18.664) | |
| | 천주교 | 44.89(8.319) | | 28.97(4.861) | | 36.08(7.406) | | 109.94(19.292) | |
| | 불교 | 43.53(8.311) | | 28.52(5.500) | | 35.31(6.908) | | 107.37(19.593) | |
| | 무교 | 45.11(7.445) | | 29.46(5.100) | | 36.32(6.487) | | 110.90(17.719) | |
| | 기타 | 43.41(11.511) | | 28.95(7.468) | | 35.29(9.516) | | 107.66(27.380) | |
| | F값 | 1.014 | | .928 | | .734 | | .981 | |
| 가족 형태 | 1 | 45.11(7.812) | | 29.51(5.217) | | 36.47(6.522) | b | 111.10(18.242) | ab |
| | 2 | 44.89(8.705) | | 29.73(5.567) | | 37.02(6.875) | b | 111.65(20.215) | b |
| | 3 | 42.83(8.168) | | 28.01(5.270) | | 34.40(7.002) | ab | 105.24(19.077) | ab |
| | 4 | 42.38(10.594) | | 27.44(6.696) | | 33.11(8.750) | a | 102.94(25.089) | a |
| | F값 | 2.232 | | 2.546 | | 3.534* | | 3.057* | |
| 출생 순위 | 첫째 | 45.41(8.013) | | 29.85(5.299) | | 36.63(6.739) | | 111.90(18.818) | |
| | 중간 | 44.71(8.013) | | 29.18(4.807) | | 35.89(6.761) | | 109.78(18.303) | |
| | 막내 | 44.47(8.046) | | 29.09(5.280) | | 36.00(6.510) | | 109.56(18.585) | |
| | 외동 | 42.56(8.503) | | 27.73(6.308) | | 35.65(7.431) | | 105.95(20.972) | |
| | F값 | 1.498 | | 1.964 | | .460 | | 1.286 | |
| 경제 력 | 잘산다 | 47.69(8.208) | c | 31.02(5.186) | c | 38.06(7.066) | c | 116.78(19.240) | c |
| | 보통 | 44.14(7.603) | b | 28.88(5.258) | b | 35.77(6.482) | b | 108.81(18.103) | b |
| | 어렵다 | 40.98(8.703) | a | 27.35(5.151) | a | 33.54(6.675) | a | 101.88(18.850) | a |
| | F값 | 15.877*** | | 11.489*** | | 9.789*** | | 14.304*** | |

1) 가족형태: 1=부모+자녀, 2=조부모+부모+자녀, 3=한부모 가족, 4=기타(조손가족 등)

2) *p<.05 ***p<.001

3)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족탄력성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학년, 성적, 가족형태, 경제력이다. 학년($F=7.308$, $p<.001$)의 경우 1학년이 116.10점, 2학년이 109.87점, 3학년이 108.10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며, 학년이 낮아질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집단과 중학교 2·3학년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성적($F=37.631$, $p<.001$)의 경우 ‘잘한다’가 118.2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112.46점, ‘못한다’가 108.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형태($F=3.057$, $p<.05$)의 각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 111.10점, 조부모와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111.65점, 한부모가족이 105.24점, 조손가족을 포함한 기타의 가족 102.94점으로 조부모와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가족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조부모와 부모-자녀집단과 기타 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력($F=14.304$, $p<.001$)은 ‘잘산다’가 116.78점, ‘보통이다’ 108.81점, ‘어렵다’ 101.88점 순으로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력이 좋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았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탄력성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신념체계는 학년, 성적, 경제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학년($F= 6.853$, $p<.001$)의 경우 1학년 47.20점, 2학년 44.55점, 3학년이 43.89점이며,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신념체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1학년 집단과 2학년, 3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성적($F=44.599$, $p<.001$)에서는 ‘잘한다’가 48.41점, ‘보통이다’ 45.84점, ‘못한다’ 40.64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적이 좋을수록 신념체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결과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력($F=15.877$, $p<.001$)에서는 ‘잘산다’가 47.69점, ‘보통이다’는 44.14점,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40.98점을 나타내며, 경제력이 좋을수록 신념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후검증결과 세 집단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직유형에서는 학년, 성적, 경제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F=7.198$, $p<.001$)에서는 1학년 집단이 30.92점, 2학년이 29.32점, 3학년이 28.68점을 보인다. 조직유형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후검증결과 1학년 집단과 2학년, 3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보임을 알 수 있다. 성적($F=29.430$, $p<.001$)을 보면 ‘잘한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31.36점이며 ‘보통이다’ 29.84점, ‘못한다’ 27.05점 순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조직유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력($F=11.489$, $p<.001$)은 ‘잘한다’가 31.02점, ‘보통이다’가 28.88점, ‘어렵다’가 27.35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력이 높을수록 조직유형이 높았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과정에서는 학년, 성적, 가족형태, 경제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F=5.340$, $p<.01$)의 경우 1학년이 37.97점, 2학년이 35.99점, 3학년이 35.52점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의사소통과정이 높게 나왔다. 사후검증결과 1학년 집단과 2학년, 3학년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적($F=23.133$, $p<.001$)은 ‘잘한다’가 38.50점, ‘보통이다’가 36.77점, ‘못한다’가 33.61점으로 성적이 좋을수록 의사소통과정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 가족형태($F=3.534$, $p<.05$)를 보면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36.47점, 조부모와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 37.02점, 한부모가족이 34.40점, 조손가족을 포함한 기타의 가족 33.11점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와 부모-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의사소통과정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후검증결과 부모-자녀가족, 조부모와 부모-자녀 집단과 기타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력($F=9.789$, $p<.001$)은 ‘잘한다’가 38.06점, ‘보통이다’가 35.77점, ‘어렵다’가 33.54점으로 경제력이 좋을수록 의사소통과정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표 4-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4-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 변수 | | 개인적 성장 | | 자아 수용 | | 대인관계 | | 자율성 | | 삶의 목적 | | 환경 지배력 | | 전체 | |
|-------|-----|-----------|----|-----------|----|----------|----|-----------|----|-----------|---|-----------|----|-----------|----|
| | | M | D | M | D | M | D | M | D | M | D | M | D | M | D |
| 성별 | 남 | 18.46 | | 20.20 | | 16.48 | | 19.05 | | 19.06 | | 16.09 | | 109.36 | |
| | 여 | 19.34 | | 19.12 | | 17.24 | | 19.02 | | 19.55 | | 15.71 | | 110.00 | |
| | t값 | -2.747** | | 3.066** | | -2.767** | | .128 | | -1.473 | | 1.599 | | -.536 | |
| 학년 | 중1 | 18.32 | a | 20.71 | b | 16.55 | a | 19.17 | | 19.58 | | 16.57 | a | 110.93 | |
| | 중2 | 18.60 | ab | 20.00 | ab | 16.04 | ab | 18.92 | | 18.60 | | 15.78 | a | 107.96 | |
| | 중3 | 19.25 | b | 19.15 | a | 17.27 | b | 19.02 | | 19.48 | | 15.69 | b | 109.88 | |
| | F값 | 3.073* | | 6.501** | | 6.829*** | | .223 | | 2.513 | | 4.253* | | 1.311 | |
| 성적 | 잘한다 | 20.11 | c | 21.30 | c | 17.34 | b | 19.85 | c | 20.69 | c | 17.05 | c | 116.38 | c |
| | 보통 | 19.00 | b | 19.99 | b | 17.12 | b | 19.17 | b | 19.46 | b | 16.09 | b | 110.86 | b |
| | 못한다 | 18.01 | a | 18.01 | a | 16.24 | a | 18.27 | a | 18.17 | a | 14.82 | a | 103.54 | a |
| | F값 | 12.525*** | | 28.110*** | | 5.647** | | 12.997*** | | 17.847*** | | 28.625*** | | 38.289*** | |
| 종교 | 기독교 | 18.65 | | 19.75 | | 16.96 | | 19.46 | b | 19.10 | | 16.19 | | 110.13 | |
| | 천주교 | 19.40 | | 18.16 | | 17.18 | | 17.89 | a | 19.43 | | 15.08 | | 107.16 | |
| | 불교 | 18.73 | | 19.41 | | 16.52 | | 18.67 | ab | 19.19 | | 15.65 | | 108.19 | |
| | 무교 | 19.19 | | 19.78 | | 17.04 | | 19.27 | b | 19.54 | | 16.01 | | 110.85 | |
| | 기타 | 17.04 | | 20.87 | | 16.04 | | 18.37 | ab | 17.87 | | 15.91 | | 106.12 | |
| | F값 | 2.267 | | 1.953 | | 1.054 | | 3.380* | | 1.226 | | 1.410 | | 1.578 | |
| 가족 형태 | 1 | 18.80 | | 19.76 | | 16.95 | | 19.09 | | 19.42 | | 15.96 | | 110.00 | |
| | 2 | 20.15 | | 20.13 | | 17.17 | | 18.71 | | 19.80 | | 16.21 | | 112.19 | |
| | 3 | 19.00 | | 19.11 | | 16.62 | | 19.05 | | 18.77 | | 15.55 | | 108.12 | |
| | 4 | 18.44 | | 17.77 | | 15.94 | | 18.50 | | 18.27 | | 14.66 | | 103.61 | |
| | F값 | 1.938 | | 2.005 | | .874 | | .478 | | 1.325 | | 1.924 | | 2.077 | |
| 출생 순위 | 첫째 | 19.08 | | 20.32 | b | 17.06 | | 19.32 | | 19.90 | a | 16.28 | b | 111.98 | b |
| | 중간 | 19.40 | | 19.21 | ab | 19.47 | | 19.17 | | 19.53 | a | 15.92 | ab | 110.72 | ab |
| | 막내 | 18.66 | | 19.41 | ab | 16.56 | | 18.92 | | 18.84 | a | 15.71 | ab | 108.12 | ab |
| | 외동 | 19.09 | | 18.70 | a | 17.12 | | 18.14 | | 18.85 | a | 15.14 | a | 107.07 | a |
| | F값 | .904 | | 2.996* | | 1.825 | | 2.190 | | 2.876* | | 2.711* | | 3.306* | |
| 경제력 | 잘산다 | 19.44 | | 20.96 | b | 17.25 | | 19.43 | | 20.24 | b | 16.79 | b | 114.12 | b |
| | 보통 | 18.76 | | 19.30 | b | 16.89 | | 18.86 | | 19.11 | a | 15.64 | ba | 108.58 | a |
| | 어렵다 | 18.90 | | 18.75 | a | 16.00 | | 19.24 | | 18.52 | a | 15.41 | | 106.84 | a |
| | F값 | 1.544 | | 9.171*** | | 2.881 | | 2.016 | | 5.434** | | 9.375*** | | 8.920*** | |

1) 가족형태: 1=부모+자녀, 2=조부모+부모+자녀, 3=한부모 가족, 4=기타(조손가족 등)

2) *p<.05 **p<.01 ***p<.001

3)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은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이다. 성적($F=38.289$, $p<.001$)에서는 ‘잘한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116.38점, ‘보통이다’가 110.86점, ‘못한다’가 103.54로 성적이 좋은 연구대상자가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생순위($F=3.306$, $p<.05$)에서는 첫째집단이 111.98점, 중간 출생순위가 110.72점, 막내집단이 108.12점, 외동집단이 107.07점으로 첫째가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외동집단과 첫째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경제력($F=8.920$, $p<.001$)에서는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14.12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08.58점,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06.84점으로 경제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보통이다’,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성장의 경우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t=-2.747$, $p<.01$)에서는 남학생 18.46점, 여학생 19.34점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이 개인적 성장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학년($F=3.073$, $p<.05$)에서는 1학년 18.23점, 2학년 18.60점, 3학년이 19.25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개인적 성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3학년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적($F=12.525$, $p<.001$)에서는 ‘잘한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20.11점, ‘보통이다’가 19.00점, ‘못한다’가 18.01로 성적이 좋은 연구대상자가 개인적 성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에서 차이가 보인다.

자아수용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t=3.066$, $p<.01$)에서는 남학생 20.20점, 여학생 19.12점으로 남학생이 자아수용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F=6.501$, $p<.01$)에서는 1학년 20.71점, 2학년 20.00점, 3학년이 19.15점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자아수용이 높게 나타나며,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3학년집단과 중학교 1학년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F=28.110$, $p<.001$)에서는 ‘잘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1.30점, ‘보통이다’ 19.99점, ‘못한다’ 18.01점으로 성적이 좋을수록 자아수용이 잘됨을 알 수 있다. 사후검

증결과 모든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출생순위($F=2.996$, $p<.05$)에서는 첫째 20.32점, 중간 출생순위가 19.21점, 막내가 19.41점, 외동이 18.70점으로 첫째가 자아수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외동집단과 첫째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 경제력($F=9.171$, $p<.001$)에서는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20.96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9.30점,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8.75점으로 경제력이 좋을수록 자아수용을 잘 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잘산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t=-2.767$, $p<.01$)에서는 남학생 16.48점, 여학생 17.24점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F=6.829$, $p<.001$)에서는 1학년 16.55점, 2학년 16.04점, 3학년이 17.27점으로 3학년 집단이 대인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 집단과 중학교 3학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F=5.647$, $p<.01$)에서는 ‘잘한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17.34점, ‘보통이다’가 17.12점, ‘못한다’가 16.24로 성적이 좋은 연구대상자가 대인관계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못한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잘한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자율성에서는 성적과 종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F=12.997$, $p<.001$)에서는 ‘잘한다’로 응답한 집단이 19.85점, ‘보통이다’ 19.17점, ‘못한다’ 18.27점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자율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교($F=3.380$, $p<.05$)에서는 기독교 집단이 19.46점, 천주교가 17.89점, 불교가 18.67점, 무교가 19.27점, 기타 종교가 18.37점으로 기독교가 자율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천주교와 기독교, 무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삶의 목적에서는 성적과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F=17.847$, $p<.001$)에서는 ‘잘한다’로 응답한 집단이 20.69점, ‘보통이다’ 19.46점, ‘못한다’ 18.17점이다. 이는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에서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출생순위($F=2.876$, $p<.05$)에서는 첫째 19.90점, 중간에 낳은 출생순위가 19.53점, 막내가 18.84점, 외동이 18.85점으로 첫째가 삶의 목적이 높았다. 경제력($F=5.434$,

$p < .001$)에서는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20.24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9.11점,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8.52점으로 경제력이 좋을수록 삶의 목적이 높다. 사후검증결과 ‘어렵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배력에서는 학년,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년($F=4.253$, $p < .05$)에서는 1학년 16.57점, 2학년 15.78점, 3학년이 15.69점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환경지배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집단과 중학교 3학년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F=28.625$, $p < .001$)에서는 ‘잘한다’로 응답한 연구대상자가 17.05점, ‘보통이다’가 16.09점, ‘못한다’가 14.82로 성적이 좋을수록 환경지배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모든 집단 간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출생순위($F=2.771$, $p < .05$)에서는 첫째 16.28점, 중간 출생순위가 15.92점, 막내가 15.71점, 외동이 15.14점으로 첫째가 환경지배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후검증결과 외동 집단과 첫째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경제력($F=9.375$, $p < .001$)에서는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6.79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5.64점, ‘어렵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15.41점으로 경제력이 좋을수록 환경지배력이 높다. 사후검증결과 ‘어렵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집단과, ‘잘산다’라고 응답한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탄력성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인 배경 변수 및 가족탄력성 변인 중 선택된 설명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상관관계 값 및 다중공선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

| 변인 | 신념체계 | 조직유형 | 의사소통과정 | 가족탄력성 | 개인적 성장 | 자아수용 | 긍정적대인관계 | 자율성 | 삶의 목적 | 환경 지배력 | 심리적 안녕감 |
|---------|---------|---------|---------|---------|---------|---------|---------|---------|---------|---------|---------|
| 신념체계 | 1 | | | | | | | | | | |
| 조직유형 | .835 ** | 1 | | | | | | | | | |
| 의사소통과정 | .792 ** | .827 ** | 1 | | | | | | | | |
| 가족탄력성 | .946 ** | .935 ** | .929 ** | 1 | | | | | | | |
| 개인적 성장 | .158 ** | .134 ** | .147 ** | .158 ** | 1 | | | | | | |
| 자아수용 | .511 ** | .453 ** | .460 ** | .510 ** | .102 * | 1 | | | | | |
| 대인관계 | .152 ** | .143 ** | .161 ** | .163 ** | .529 ** | .066 | 1 | | | | |
| 자율성 | .261 ** | .267 ** | .280 ** | .287 ** | .261 ** | .435 ** | .206 ** | 1 | | | |
| 삶의 목적 | .288 ** | .280 ** | .248 ** | .291 ** | .623 ** | .244 ** | .512 ** | .288 ** | 1 | | |
| 환경 지배력 | .483 ** | .458 ** | .490 ** | .511 ** | .253 ** | .653 ** | .213 ** | .499 ** | .428 ** | 1 | |
| 심리적 안녕감 | .457 ** | .425 ** | .436 ** | .471 ** | .696 ** | .624 ** | .618 ** | .628 ** | .776 ** | .728 ** | 1 |

*p<.05 **p<.01

가족탄력성 전체와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나고 있다.

가족탄력성의 요인별로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념체계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인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 지배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

조직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 지배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과정과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성장, 자아수용,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환경 지배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보인다.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 전체와 심리적 안녕감 전체, 모든 요인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모델이 선택되었다. 성별에 따라 여자에 비해 남자가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학년, 성적, 종교, 가족형태, 출생순위, 경제력을 모델에 포함시켰다. 또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등 가족탄력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모델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 독립변수 \ 종속변수 | 개인적 성장 | | 자아수용 | | 긍정적 대인관계 | | 자율성 | | 삶의 목적 | | 환경 지배력 | | 심리적 안녕감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가족탄력성 | | | | | | | | | | | | | | |
| 신념체계 | .054 | .114 | .181 | .036*** | .038 | .094 | .013 | .037 | .073 | .152 | .070 | .202** | .428 | .241*** |
| 조직유형 | .006 | .009 | -.011 | -.014 | .029 | .048 | .041 | .075 | .110 | .151 | 6.962E-05 | .000 | .175 | .065 |
| 의사소통과정 | .039 | .070 | .097 | .158* | .039 | .080 | .069 | .161* | -.004 | -.007 | .119 | .289*** | .360 | .169* |
| 인구학적 변수 | | | | | | | | | | | | | | |
| 성별(남자) | -.791 | -.107* | .984 | .121** | -.805 | -.126** | .006 | .001 | -.601 | -.079 | .320 | .059 | -.887 | -.032 |
| 학년(중3) | .998 | .131** | -.351 | -.064 | 1.003 | .153*** | .194 | .034 | .664 | .082 | -.073 | -.013 | 2.235 | .078 |
| 성적(좋음) | 1.081 | .125** | 1.153 | .122** | .203 | .027 | .743 | .113* | 1.069 | .120** | .852 | .134*** | 5.101 | .156*** |
| 종교(불교) | -.162 | -.011 | -1.283 | -.082* | -.255 | -.021 | -1.401 | -.129** | -.412 | -.028 | -.866 | -.083* | -4.380 | -.081* |
| 가족형태(부모+자녀) | -.933 | -.111* | -.011 | -.001 | .003 | .000 | .049 | .008 | .003 | .000 | -.142 | -.023 | -1.030 | -.032 |
| 경제력(좋음) | .564 | .064 | .475 | .049 | .364 | .048 | .077 | .011 | .646 | .071 | .517 | .080* | 2.644 | .079* |
| 상수 | 15.079*** | | 7.893*** | | 12.619*** | | 14.546*** | | 12.518*** | | 8.212*** | | 70.867*** | |
| F value | 5.788*** | | 26.204*** | | 4.995*** | | 6.643*** | | 8.480*** | | 23.476*** | | 21.368*** | |
| Adj R-squar | .079 | | .310 | | .066 | | .091 | | .118 | | .286 | | .266 | |

*p<.05 **p<.01 ***p<.001

중다회귀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F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제 모델들은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6%수준으로 독립변수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성별, 학년, 성적, 가족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개인적 성장은 여학생일수록, 중학교 3학년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가족의 형태가 부모+자녀가족이 아닐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수용은 신념체계, 의사소통과정, 성별, 성적, 종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아수용은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과정이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인구학적 변수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인관계는 성별과 학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학생일수록, 그리고 학년이 3학년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율성은 의사소통과정과 성적 그리고 종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과정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종교가 불교가 아닐 경우에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삶의 목적은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적이 좋을수록 삶의 목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환경지배력은 신념체계, 의사소통과정, 성적, 종교, 경제력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념체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될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불교가 아닌 종교를 가질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환경에 대한 지배력은 높은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심리적 안녕감은 하위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구학적 변수들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두고 보았을 때,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율성은 의사소통과정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내의 남녀공학 중학교 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년, 성적, 가족형태,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형태에서는 조부모와 부모-자녀가족이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력이 좋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에서는 학년, 성적,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신념체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조직유형에서는 학년, 성적,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조직유형이 높았다. 의사소통유형에서는 학년, 성적, 가족형태, 경제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조부모와 부모-자녀가족일수록, 경제력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일반적인 특성 중 학년과 성적, 가족형태와 경제력이 가족탄력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인혜(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력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고, 전유진(2006)의 연구에서는 부자가족 청소년의 가족탄력성을 연구한 결과 학년과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배경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어떠한 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적이 좋을수록, 첫째일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개인적 성장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개인적 성장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자아수용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자아수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학생일수록, 3학년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자율성에서는 성적과 종교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기독교집단일수록 자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목적에서는 성적과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적이 좋을수록, 첫째일수록, 경제력이 좋을수록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배력에서는 학년,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첫째가, 경제력이 좋을수록 환경지배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성별, 학년, 성적, 출생순위, 경제력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배성애(1998)의 경우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으나, 다른 선행연구(김기형, 2006; 김중남, 2004; 조호운, 2011)에서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조호운(2011)의 연구에서 경제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이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다.

세 번째,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탄력성과 가족탄력성 요인,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요인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조호운(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기능에서의 가족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명희(2013)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박주연(2011)은 가족탄력성과 생활만족도를 포함하고 있는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생활만족도와 가족탄력성변인간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민경(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과 부정적 정서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자존감과는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배경과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을 기준하였을 때 모델들은 유의하였으며 약 26%수준으로 독립변수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을 두고 보았을 때,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이 심리적 안녕감 전체,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율성은 의사소통과정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 학령, 가족탄력성 변인, 가족지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안자(2005)의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에 속하는 하위요인 연결성과 가족자원만이 가족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가족탄력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요인이다. 그리고 모델에 투입한 모든 변수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탄력성의 요인인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은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요인인 자아수용과 환경지배력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족탄력성 요인 의사소통과정은 심리적 안녕감 요인인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탄력성의 요인인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연구결과로 나타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가족탄력성을 높이는 프로그램개발 및 그에 따른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표집에 한계가 있어 대표성이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족탄력성을 측정함에 있어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가족탄력성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또는 가족원 모두가 인지하는 가족탄력성을 같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이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구조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적 연구로는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라는 인간의 심리·정서적 부분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심층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도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가족탄력성 이외의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을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탄력성은 학년, 성적, 경제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이 낮게 나타난 중학교 3학년집단, 성적이 낮은 집단,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집단에 대한 가족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관련 배경변인인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탄력성을 비교

해 본 결과 가족탄력성 전체와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특히, 조부모와 부모-자녀 가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직계가족 형태의 가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가족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심리적 안녕감에서는 성별, 학년, 종교, 경제력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일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성적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그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나는 집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가족관련 배경요인인 출생순위에서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출생순위가 첫째에 속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교하였을 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집단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다른 집단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역경을 대처하는 방식과 손상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 즉 가족탄력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족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에 대한 더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가족탄력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구하고 가족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어 가족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족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익균(2008). 가족관계학. 교육과학사.
- 양옥경·김미옥·최명민(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나남출판사.
- 양옥경·최소연·송인석·권지성·양후영·염태산(2004). 사회복지와 탄력성. 나눔의 집.
- 이영숙·박경란·전귀연(2008). 가족문제와 복지. 선정.
- 이원숙(2007). 가족복지론. 학지사.
- 임영식·한상철(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정순돌(2006). 강점모델: 노인 장기요양보호와 사례관리실천. 아산사회복지재단.

2. 학위논문

- 강명희(201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 및 자아 탄력성의 매개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미영(2010). 긍정 심리학 기반의 행복 증진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복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정화(2005). 한 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은(2005).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형(2008).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희(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 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자(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2007). 가족탄력성이 초등학교에 통합된 장애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7). 가족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지(2007). 정신분열 환자의 개인사회적 기능과 가족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2012). 울산시 조손가정 손자녀의 가족생활특성과 우울감이 가족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혜(2011). 지적장애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남(2004). 인문계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숙(2005). 장애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과 비장애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11).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현(200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성애(1998).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들에 관한 탐색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진미(2006). 대학생의 지속적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아주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선숙(2012).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통합모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미(2009). 정신지체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성애(2010).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가족탄력성의 매개 및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리(2008).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 정서지능, 부모화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2008). 청소년이 인지한 가족탄력성과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2010). 성격 강점과 긍정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왕영선(2013). 발달장애아동 가족이 가족탄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유진(2006).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모·부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호운(201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주(2009). 가족탄력성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아람(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 기본심리욕구의 메

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학회지

- 김경숙(2007). 현대 청소년 교육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지향적 정향 ; 문학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 한국 청소년문화. 10, 139-154.
- 김명조(2013).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정서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17-35.
- 김명소·김혜원·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민경(2011).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모형 분석. 17(1). 61-83.
- 김은한·유서구(2012). 가족탄력성이 빈곤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35(3). 145-171.
- 김용희(2012).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정서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9). 231-256.
- 조윤주(2007). 생산적 활동과 이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여성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0(2), 23-44.
- 천혜정·임유미(2007).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이혼여성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9(3), 123-146.
- 현은민(2008). 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이 여성한부모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4). 59-84.

4. 외국문헌

- Keyes, C. L. M. (2006). Subjective well-Being in mental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research world wide: An introdu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7(1), 1-10.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 543-562.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e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5. 기타

사회통계기획과(2012). 2012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통계청 통계대행과(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im Ji-eun

Department in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tudy also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follow-up study searching for ways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based on the findings.

For those purposes, the study collected data with a questionnaire on family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istributed to a total of 533 schools at two coed middle schools and analyzed collected data with the SPSS 18.0 program.

The study performed t-test and One-way ANOVA to examine differences among variabl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orrelation analysis to examine 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influences among the variables.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amily resilienc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type of family,

and economic strengt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belief system, one of th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and economic strength, in the type of organization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and economic strength, and in the type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type of family, and economic strength.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according to academic record, order of birth, and economic strength. Those who had good academic records, were first-borns, and had good economic strength tended to show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individual growth, one of the sub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academic record, in self-acceptance according to gender, grade, academic record, and economic strength,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der, grade, and academic record, in autonomy according to academic record and religion, in purpose of life according to academic record, order of birth, and economic strength, and finally in environmental mastery according to grade, academic record, order of birth, and economic strength.

Thir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all of its facto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ll of its factors. The higher family resilience was, the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became.

Fourth,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s, had influence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t a level of approximately 26%. As for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belief system and communication process of family resilience had influences on the entir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The communication process had impacts only on autonomy.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family resilience had close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that the belief system and communication process, two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had influences on the entire psychological well-being, self-acceptance, and environmental mastery, and that the communication process, one of the factors of family resilience, had impacts on autonomy, one of th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findings raise a need to develop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family resilience and conduct follow-up study in order to help middle school students increas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os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ninth graders, those who receive low grades, and those who are from the low-income class that turn out to have low family resilience. The comparison results on family resilience according to the type of family, a background variable related to family, reveal that there were significant results only in the entire family resilience and its subfactor, the communication process and that the family type of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especially scored high points, which raises a need for research on families of such an immediate family type and on the factors to increase family resilience.

Second, there is a need to carry out research on groups of low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arch for ways to increas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 were espec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ntir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ts subfactors, self-acceptance, purpose of life, and environmental mastery, according to the order of birth, a family-related background factor. Those who were first-borns scored higher points than other groups. Researchers can analyze the factors responsible for their high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pply them as a means of increas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ther groups.

Third, the present study found clos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implies that adolescents can enhanc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by cultivating family resilience, which refers to the methods to cope with a family crisis and adversity and the abilities to recover from damage. There is thus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family programs to increase family resilience by promoting a further understanding of family resilience in more follow-up research on family resilience and finding factors affecting family resilience to reinforce family resilience.

Finally, the analysis results of impa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show that the belief system and communication process were the subfactors of family resilience that had direct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which raises a need for research on ways to enhance family resilience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and counseling programs based on such research. It is also needed to continue research efforts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by carrying out follow-up study on the various family-related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이 설문지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과 개인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은 반드시 지켜지며 이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각 문항에서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며 본인의 생각대로 솔직하고 성의있게 질문에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를 작성할 시간을 내주시는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13. 06.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가족학전공 석사과정

연구자 김지은

가족탄력성 척도

▶▶ 다음은 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 번호 | 문항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할 때 더 잘된다고 생각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앞뒤를 잘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 |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4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과 및 그 해결책을 곰곰이 생각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5 |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6 | 잠재력과 힘을 발휘해서 서로 격려하여 어려움을 극복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7 | 적극적으로 잘하려는 의지로 밀고 나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8 | 가능성을 탐색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인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9 | 보다 더 큰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0 | 믿음과 서로간의 지지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위로해 나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1 |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창의적, 사회적으로 행동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2 |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3 |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고 다시 목표를 세워 변화를 받아들인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4 |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돕는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5 |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며 보호해주고 이끌어 나가며, 필요할 때 협력하여 책임을 가지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6 | 서로 돕고 같이 일하고 헌신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번호 | 문항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7 |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며 각자 사생활을 존중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8 |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관계를 회복하기위해 노력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9 | 친척, 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배워갈 대상을 찾는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0 |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일과 가족사이의 조화를 이룬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1 | 분명하고 한결같은 말과 행동을 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2 | 근거 없거나 애매한 이야기가 아닌 진실만을 추구하고 이야기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3 | 기쁨, 고통, 희망, 절망 등 어떠한 감정도 서로 나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4 | 서로 공감하고 서로간의 차이를 받아들인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5 | 상대방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6 | 유머를 가지고 서로 같이 즐겁게 생활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7 | 창조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찾음으로써 좀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8 | 공동 의사 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협상과 공정성, 서로의 관계를 갖춘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9 | 목표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해결책을 세우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며 실패로부터 배워 나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0 |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심리적 안녕감 척도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칸에 체크해 주세요.

| 번호 | 문항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 | 현재 내 생활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 |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현재 결과에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 |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4 | 많은 사람들과 의견이 달라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5 |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6 |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7 | 내 고민을 털어놓을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8 | 과거에는 나 자신이 혼자 목표를 세우곤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시간낭비였던 것 같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9 | 일상의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0 |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1 |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2 | 가끔 매일하는 일들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3 | 나는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4 | 정말 필요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 많지 않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5 | 나는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편이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6 |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크게 발전 하지 못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7 |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번호 | 문항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보통이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
| 18 | 과거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일이 매우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19 | 나는 일반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0 |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친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1 | 나는 미래의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즐긴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2 |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3 | 나는 시간 활용을 잘해서 해야 할 일을 제 시간에 맞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4 | 그 동안 한 개인으로서 크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5 | 내가 세운 계획은 어떻게 해서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6 |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 세우지 못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7 | 지금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할 새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8 | 과거를 돌이켜보면 좋았던 때도 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29 | 내 인생을 크게 개선하거나 바꾸겠다는 생각은 이미 버렸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0 | 나 자신을 친구나 친척들과 비교할 때면 나 자신에 대해 흐뭇하게 느껴진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1 | 나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남들의 기준에 의해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2 | 나의 생활방식을 내 맘에 들도록 만들어올 수 있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3 |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뒤늦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34 | 다른 사람들과 다정하고 신뢰 깊은 관계를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 ⑤ | ④ | ③ | ② | ① |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체크해 주세요.

1. 당신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당신의 몇 학년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3. 당신의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잘한다 ② 보통이다 ③ 못한다

4.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

5.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체크해 주세요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자매

④ 조부모 ⑤ 기타 ()

6. 5번 문항에서 아버지를 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망 ② 이혼 ③ 별거 ④ 가출 ⑤ 기타 ()

7. 5번 문항에서 어머니를 표시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망 ② 이혼 ③ 별거 ④ 가출 ⑤ 기타 ()

8. 당신의 형제· 자매 관계는 어떻습니까?

_____남 _____녀 중 () 번째

9. 현재 가족의 경제 사정은?

① 경제적으로 잘 산다 ② 보통이다 ③ 경제적으로 어렵다

10. 아버지의 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1. 어머니의 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2.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3.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